2026 KRX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벤치마크 진단

주요 항목별 벤치마크 진단 결과지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 벤치마크 대비 현황 진단

수검 기업	**㈜뉴보텍**	진단 기준일	**2026-08-19**
시장 · 업종	**코스닥시장 · 소재** (백서 모집단 17개사)	데이터 기간	**FY2023–FY2025 (제33기~제35기)**
재무제표 기준	**별도 (K-IFRS) — 제35기 중 종속기업 청산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없음**	기존 공시	**미공시**

종 합 판 정

주의 업종 목표 벤치마크 미달 구간

주 의
R ADVISORY · VB

ROE 8.59%는 소재 업종 실적선 3.2%를 넘었으나 목표선 10.1%에 1.51%p 못 미치고, PBR 0.80배도 실적선 0.6배와 목표선 1.0배 사이에 있다. 반면 배당성향·주주환원율은 두 지표 모두 0.0%로, 시장 실적선 37.4%·업종 목표선 34%에 대해 유일하게 위험 판정을 받은 축이다. 12개 평가항목 자가채점은 0/24점으로, 수익성 회복분이 아직 주주환원·소통 어느 쪽으로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판정 분포 — 대조 지표 11개

위험 2 · 주의 3 · 양호 0 · 참고/산출불가 6



■ 위험 — 두 기준선 모두 미달 ■ 주의 — 기준선 사이 ■ 양호 — 높은 기준선 이상 ■ 참고·산출불가 — 백서 벤치마크 부재 또는 입력 누락

출처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 110p
목표치 = 완결형 공시 187개사가 약속한 수준(PART 02) · 실적치 = 시장 기록(PART 03)
결과지 서식 v2.0 (2026-08-15)

ISSUED BY KONNECT

제도의 취지와 핵심사항

PURPOSE OF THE PROGRAM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진단하고 목표와 실행계획을 시장에 알리는 자율공시 제도다.

제도의 축은 「진단 → 목표 → 계획 → 이행평가 → 소통」의 순환이며, 그 출발점인 현황진단은 자본수익성(ROE)·자본비용(COE)·시장평가(PBR)를 정량적으로 대조하는 데서 시작한다. 본 결과지는 그 출발점을 백서 벤치마크로 대신 수행한 것이다.

제도 성격	작성 주체	공시 방법·주기	이사회 관여
자율공시	**전략·재무 부서**	**KIND · 연 1회**	**의무 아님**
참여 여부·지표 선택·시계(視界) 전부 기업 자율 (p.103~104)	「전략 및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p.105)	계획서 첨부 제출, 주기적 공시 권장. 홈페이지 공개보다 KIND가 먼저 (p.105)	보고·심의·의결은 의무가 아니나 거친 경우 기재 시 신뢰도 제고. 실제 참여 73% (p.104·p.33)

제도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

FIVE CHARACTERISTICS

자율성	참여 여부, 사용할 지표, 목표 시계를 기업이 정한다. 표준 서식·파일형식도 자유이며 가이드라인 내용 전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103~104
미래지향성	과거 실적 보고가 아니라 도달하려는 상태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문서다. 목표에는 예측이 수반된다는 점을 제도가 전제한다.	p.103
종합성	재무지표만이 아니라 사업모델·시장환경·경쟁우위·리스크·지배구조를 함께 다룬다.	p.103·p.106
선택과 집중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 강조할 부분을 선정할 수 있음」. 우수사례 20건도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되었다.	p.104·p.82
이사회 책임	이사회 보고·심의·의결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거친 경우 개최일자·심의 내용을 기재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p.104

표준 목차

기업개요 → 현황진단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이행평가 → 소통

가이드라인 표준 목차 (p.106). 서식·파일형식은 자유이며 항목 생략도 가능하다 (p.104).

12개 평가항목 거래소는 공시 내용을 12개 평가항목으로 심사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p.73~82). 2025년 선정 20건은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되었고, 코스닥은 20건 중 4건(①④⑦)에 그친다. ② 자본비용(COE) 분석은 전체 587개사 중 1건뿐이다. 12개를 모두 채우는 전략은 이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 VI의 자가채점은 그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 백서 p.105 · 다만 허위기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업종, 사업구조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의미가 크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백서 p.104

>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원론적인 목표 설정 지양」*
> — 백서 p.76 · 목표에는 기간과 산출 방법론이 함께 붙어야 한다.

제도가 만든 관측 결과 주기적 공시기업 주가 +100% · 본공시 기업 시총 비중 72.2% · 기관투자자 최우선 평가요소 38% — 출처와 기준일은 「시장 맥락」 절에 함께 싣는다.

적용 코스닥 상장사이므로 백서 선정 사례 20건 기준 ②⑤⑥⑧⑨⑩⑪⑫는 코스닥 선정 0건 구간이다. 참여 현황상 코스닥 282건이 제출됐으나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참여 비중은 22.0%에 머문다.

II 벤치마크 체계와 산출기준

BENCHMARK BASIS

백서의 수치는 성격이 다른 두 계열이며 섞으면 진단이 무너진다. 본 결과지는 모든 지표에 두 기준선을 함께 표시하고, 값의 위치로만 판정한다.

기준선	모집단	출처	의미 — 무엇을 재는 자인가
목표선 업종 공시기업이 앞으로 도달하겠다고 약속한 수준	완결형 공시 187개사 (고배당 약식 400개사 제외)	백서 PART 02 · p.34~53	우리 목표가 업종 대비 튀는지를 재는 자
실적선 시장이 실제로 기록한 수준	공시 587개사 / 미공시 1,994개사	백서 PART 03 · p.54~71	현재 위치를 재는 자

산업재 ROE는 목표 14.2% vs 실적 5.8%로 2.4배 차이난다. 어느 선을 인용하는지 문장에 반드시 명시한다.

산식

FORMULAS

내재 COE (백서 산식)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 g = 0 가정 (p.40 각주). 참고 표기 전용 —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외생 COE (판정용)

COE = Rf + β × ERP

CAPM 입력값이 있으면 우선, 없으면 업종 도출 COE(p.40)를 쓴다

Equity Spread

ES = ROE − 외생 COE

내재 COE로 재면 ES = ROE(1 − 1/PBR)이 되어 「PBR이 1을 넘는가」의 동어반복이 된다

목표 PBR 상한

상한 = 목표 ROE ÷ 업종 도출 COE

초과 시 p.41 경고 대상 — 검증 부담과 시장 불신

백서 벤치마크는 여섯 계열이다

SIX FAMILIES

계열	이름 · 성격	모집단	출처	용도
A	**목표치 벤치마크** 공시기업이 약속한 수준	완결형 187개사	p.34~53	목표의 공격성 검증
B	**실적 벤치마크** 시장이 기록한 수준	공시 587 / 미공시 1,994	p.54~71	현황진단의 비교 기준
C	**국제 벤치마크** 국가 간 비교	MSCI Index	p.15·56·62	저평가 논거
D	**지배구조 벤치마크** 15개 핵심지표 채택·이행	187 / 87 / 46개사	p.50~52·71	평가항목 ⑫ 목표 설계
E	**제도·심사 벤치마크** 12개 평가항목·우수사례 20건	2025년 공시분	p.73~82	어느 항목을 노릴지
F	**시장 기대 벤치마크** 기관투자자 설문	103명	p.98~101	무엇을 중시하는지

본 결과지 III의 판정은 A·B만 사용한다. C·D·E·F는 판정에 쓰지 않고 VI·VIII의 맥락으로만 인용한다.

판정 규칙

JUDGMENT RULE

양호 두 기준선 중 높은 쪽 이상 | 주의 두 기준선 사이 | 위험 두 기준선 중 낮은 쪽 미만 | 참고 백서에 기준선이 없는 지표 — 값만 표기 | 산출불가 입력 누락 — 무엇이 없었는지 표지에 기재

두 선의 상하 관계와 무관하게 단조(monotone)하도록 정의했다. 정보기술 업종처럼 목표 배당성향 23%가 시장 실적 37.4%보다 낮은 역전 사례가 실재하므로 「목표선 이상이면 양호」 규칙은 쓸 수 없다. Equity Spread만 예외로 0%p 이상 양호 / −2%p 이상 주의 / 미만 위험으로 본다.

인용 시 주의 표마다 모집단이 다르다. 목표 ROE 합계 12.0%는 ROE 제시 109개사, 도출 COE 전체 11.4%는 ROE·PBR 동시 제시 기업 기준이다. · 에너지 3개사·유틸리티 1개사·기타 1개사는 백서에서 「업종 평균」으로 표기되나 대표성이 없다. 해당 업종은 판정을 참고로만 쓴다. · 목표치 표에는 시장별(코스피/코스닥) 분해가 없다. 코스닥 비교는 실적 기준(p.66)만 가능하다. · 도출 COE는 개별 기업별 산출 후 평균한 값이라 표의 평균끼리 나눠 검산되지 않는다(전체 10.0% vs 11.4÷1.04 = 10.96%).

II 벤치마크 체계와 산출기준 계속 — 본 진단 적용분

BENCHMARK BASIS · CONT.

현황진단 시 고려사항 SCOPE

사업모델	주요 사업부문 구분, 제품·서비스 종류와 특징, 사업부문별 매출·이익 추이 및 비중
시장환경	시장 특성·규모, 경쟁환경, 점유율과 시장 내 위상
경쟁우위요소	인적·물적 자원, 기술력
리스크요인	거시경제·산업·개별기업 측면의 주요 리스크

가이드라인 지표 분류 METRICS

시장평가	PBR, PER 등
자본효율성	[자본수익성] ROE, ROIC / [자본비용] COE(주주자본비용), WACC
주주환원	[배당] 배당금액·배당성향·배당수익률 / [자사주] 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 [종합] TSR, 주주환원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자산증가율, R&D투자증가율
기타	자산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 FCF, 부채비율

현황진단 시 고려사항 (p.106). 본 결과지는 이 중 정량 축(자본효율성·시장평가·주주환원·성장성)만 대조한다. 사업모델·시장환경·경쟁우위·리스크 서술은 공시서류 작성 단계의 몫이다. 가이드라인이 예시한 지표 분류 (p.107). 본 결과지 III의 대조표는 이 분류를 따른다.

본 진단에 적용된 기준선 APPLIED BASELINES

지표	실적선 목표선	산출 출처	모집단 · 주의	의미 — 무엇을 재는가
ROE (자기자본이익률)	3.2% 10.1%	업종 2025 실적 ROE (p.67) 업종 목표 ROE (p.40)	목표 = ROE 제시 109개사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익률. 저평가가 수익성 문제인지 판별하는 1차 축
PBR (주가순자산비율)	0.6배 1.0배	업종 2025 실적 PBR (p.67) 업종 목표 PBR 평균 (p.38)	목표 = PBR 제시 46개사	시장이 자본에 매기는 값. 목표선 제시는 상위 26%에 드는 희소 축
COE (자기자본비용)	— 10.1%	없음 (참고 표기) 업종 도출 COE (p.40)	ROE·PBR 동시 제시 기업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평가항목 ②의 핵심이며 전체 587개사 중 1건만 선정된 축
Equity Spread (ROE − COE)	0.0%p 0.0%p	기준 0%p 기준 0%p	—	ROE − COE. 음수면 PBR이 1배를 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된다
배당성향	37.4% 34%	시장 2025 배당성향 (p.66) 업종 목표 배당성향 (p.43)	실적선은 업종별 분해가 없어 시장선 사용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나가는 비율
주주환원율	37.4% 34%	시장 배당성향 대용치 (p.66) 업종 목표 주주환원율 (p.43)	주주환원 목표 제시 162개사	배당 + 자사주까지 포함한 총환원. 실적선은 대용치이므로 판정을 좁게 읽는다
TSR (1년)	— 20%	없음 업종 목표 TSR (p.43)	TSR 제시 15개사	주가상승 + 배당의 총주주수익률

판정하지 않는 지표 — 배당수익률 (—) · 매출액 CAGR (성장성 제시 112개사 — 개수만 존재) · 영업이익 CAGR (영업이익 목표 25개사 — 개수만 존재) ·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제시 38개사 — 개수만 존재). 아래 항목은 백서에 벤치마크가 없다. 본 결과지는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는다 — 없는 기준선을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 것이 이 진단의 하드룰이다.

적용 시가총액(주가 1,365원 × 의결권 있는 주식수 13,342,356주 = 182억원)이 확보되어 PBR·COE·Equity Spread를 모두 산출했다. 다만 1년 전 주가와 배당 이력이 없어 TSR은 산출불가로 남겼다.

III 벤치마크 대조표

BENCHMARK COMPARISON

검사 항목	산식	결과값	참고범위	실적선	목표선	판정
자본효율성 · 시장평가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ROE (자기자본이익률) 3개년 평균 -10.8%	지배주주순이익 ÷ 평균 지배주주지분 × 100	8.59%		3.2%	10.1%	주의
PBR (주가순자산비율) 업종 목표 범위 0.5~2.0배	시가총액 ÷ 지배주주지분	0.8배		0.6배	1.0배	주의
COE (자기자본비용) 산출근거 내재(ROE÷PBR, g=0) · 업종 도출 COE 10.1%	내재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 g=0 가정, 백서 p.40 각주) / CAPM = Rf + β×ERP	10.76%		–	10.1%	참고
Equity Spread (ROE − COE) 판정 기준 COE = 업종 도출 COE 10.1% (백서 p.40) · 내재 COE 기준 -2.17%p (참고 — PBR>1 여부의 재진술이므로 판정 근거로 쓰지 않음)	ROE − COE(외생). 0 이상이면 자본비용을 넘어선 상태 = PBR>1의 이론적 조건	-1.51%p		0.0%p	0.0%p	주의
주주환원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배당성향 공시기업 평균 48.2% · 미공시 29.7% (p.66)	현금배당총액 ÷ 당기순이익 × 100	0%		37.4%	34%	위험
주주환원율 ⚠ 실적선은 시장 배당성향 대용치입니다(백서에 주주환원율 실적 벤치마크 없음)	(현금배당총액 + 자사주 취득액) ÷ 당기순이익 × 100	0%		37.4%	34%	위험
배당수익률 백서에 목표 배당수익률 업종 벤치마크 없음(제시 7개사) — 참고 표기	주당배당금 ÷ 주가 × 100	0%		–	–	참고
TSR (1년) TSR 실적 벤치마크는 백서에 없음 — 목표선만 대조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		–	20%	산출불가
성장성 · 수익성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매출액 CAGR ⚠ 백서에 업종별 목표 매출성장률 수치표 없음 — 참고 표기(제시 104개사)	(FY2023→FY2025) 연평균 성장률	-5.66%		–	–	참고
영업이익 CAGR ⚠ 백서 벤치마크 없음(제시 25개사)	연평균 성장률	–		–	–	산출불가
영업이익률 ⚠ 백서에 업종별 목표 영업이익률 수치표 없음(개수만 존재) — 자체 근거 필요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2.99%		–	–	참고

판정 규칙 — 두 기준선 중 **높은 쪽 이상 = 양호** / **사이 = 주의** / **낮은 쪽 미만 = 위험**. 기준선이 없는 항목(백서 미제공)은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IV 주요 이상 소견 KEY FINDINGS

위험 배당성향 0%

실적선 **37.4%** · 목표선 **34%** · 목표선까지 34.00%

제33기~제35기 3개 사업연도 모두 현금배당 결의·지급 이력이 없어 배당성향은 0.0%다. 제35기 순이익 1,879백만원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재원 판단이 유보된 상태이며, 사업보고서는 배당절차 개선방안(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로만 기재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두 기준선(시장 실적선 37.4%·업종 목표선 34%) 모두에 미달한다.

위험 주주환원율 0%

실적선 **37.4%** · 목표선 **34%** · 목표선까지 34.00%

현금배당 0원에 제34기 자사주 취득 7백만원만 있어 주주환원율은 0.0%다. 제35기 순이익 1,879백만원 기준으로 업종 목표 주주환원율 34%를 적용하면 약 639백만원 규모가 되나, 최근 3개년 누적 순이익이 제33기 대손(−6,405백만원) 때문에 음(−)이어서 FCF 대비 여력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는다.

V 업종 표준 목표 레인지 TARGET RANGE

목표 ROE	목표 PBR
10.1%	**1.0배**
중기	업종 범위 0.5~2.0배 · 상한 1.0배
업종 목표 평균 10.1%가 표준 앵커입니다 (현재 8.6%, 갭 1.5%p).	목표 PBR 상한 = 목표 ROE 10.1% ÷ 업종 도출 COE 10.1% = 1.0배. 이를 넘는 목표는 백서 p.41 경고 대상(「과도하게 높은 PBR … 검증 부담 … 시장 불신」).
목표 주주환원율	**목표 기간**
34%	**3년**
배당성향 34%	중기
업종 목표 주주환원율 평균 34% (배당성향 34%). FCF·순이익 데이터 부족으로 여력 검증 불가.	중기 3년(FY+3) — 백서 표준(중기 52.9% / 3~5년, p.36)

지표 채택률 맥락 소재 업종에서 시장평가(PBR)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35%뿐입니다 — 제시하면 상위군에 듭니다. 자본효율성 76% · 주주환원 94% · 비재무지표 64.7% (백서 p.35·p.53)

「그러나 ROE÷COE 대비 과도하게 높은 PBR을 설정할 경우, 향후 성과에 대한 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백서 p.41

VI 12개 평가항목 자가채점

KRX 12-ITEM SELF SCORING

1	다각적·입체적 현황진단 우수사례 티씨케이(코스닥), 피에스케이홀딩스(코스닥)	미충족
2	자본비용(COE) 등 분석 우수사례 한화시스템 · 코스닥 0건	미충족
3	중장기 계량적 목표설정 우수사례 지역난방공사, 케이씨씨 · 코스닥 0건	미충족
4	종합적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우수사례 코미코(코스닥)	미충족
5	목표달성 위한 구체적·합리적 계획수립 우수사례 키움증권, 하나투어 · 코스닥 0건	미충족
6	임직원 인센티브 연계 우수사례 신한지주, 농심 · 코스닥 0건	미충족
7	목표달성 평가 및 원인분석 우수사례 디케이앤디(코스닥), LG이노텍	미충족
8	이행평가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 우수사례 하나금융지주, 강원랜드 · 코스닥 0건	미충족
9	주요 경영진(C-level·이사회)의 소통 참여 우수사례 롯데쇼핑 · 코스닥 0건	미충족
10	적극적인 소통정책 수립 및 이행 우수사례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지주 · 코스닥 0건	미충족
11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영문공시) 우수사례 한국항공우주 · 코스닥 0건	미충족
12	구체적 지배구조 개선 목표·이행일정 우수사례 코웨이, 풀무원 · 코스닥 0건	미충족

자가채점 **0** / 24점 응답 12/12항목

우수사례 20건은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됨 — 선택과 집중이 맞습니다

선점 가능 항목 (희소성 순)

- **2. 자본비용(COE) 등 분석**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최고 · 재무데이터로 즉시 착수 가능
- **11.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영문공시)**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높음
- **4. 종합적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재무데이터로 즉시 착수 가능
- **6. 임직원 인센티브 연계**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높음

VII 종합 소견

CLOSING OPINION

저평가의 위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환원과 소통에 있다. ROE 8.59%·PBR 0.80배는 소재 업종 실적선(3.2%·0.6배) 위에 있고, 주의에 머무는 것은 목표선(10.1%·1.0배)에 못 미쳐서다. 배당성향·주주환원율 0.0%가 유일한 위험 판정이며 12항목 자가채점은 0/24점이다.

Equity Spread −1.51%p가 중심 수치다. 업종 도출 COE 10.1% 대비 ROE가 1.51%p 미달하는 것이 PBR 1배를 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며, 백서 평가항목 ②가 요구하는 분석의 출발점이다. CAPM 부재로 COE는 대용치다.

목표 레인지 상한은 목표 ROE 10.1% ÷ 업종 도출 COE 10.1% = 1.0배이며 초과 시 백서 p.41 경고 대상이다. 주주환원율 앵커 34%는 3개년 누적 순이익이 음(−)이어서 여력 검증이 불가능해, 백서 p.44~45 조건부·산식형이 대안으로 관측된다.

선점 여지가 큰 항목은 ② 자본비용(COE) 분석과 ⑪ 외국인 소통이다. ②는 백서 선정 587개사 중 한화시스템 1건뿐·코스닥 0건이고 재무데이터만으로 즉시 착수 가능하며, ⑪도 한국항공우주 1건뿐이다.

VIII 시장 맥락

MARKET CONTEXT

주기적 공시기업 주가	공시기업 시총 비중	기관투자자 최우선 평가요소
+100%	**72.2%**	**38%**
단회 +82% · 미공시 +59% 2024-05-27=100p, 2026-03-31 기준 (p.59)	본공시 587개사 유가 305 / 코스닥 282 (p.30)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여부」 + 중장기 목표·지표 적합성 29% (103명, p.100)

IX 다음 단계

NEXT STEPS

CAPM 파라미터(Rf·β·ERP) 출처와 산출기간을 확정하고, 배당수익률 0.73%(외부 시세)와 「배당 이력 없음」(사업보고서)의 상충을 정리한다.

REFERRAL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서류 작성

본 진단은 **현황 대조와 목표 레인지 제시**까지입니다. KIND 제출용 완결형 본공시 작성(COE 산출 근거·Equity Spread 시계열·12항목 충족 설계·지배구조 로드맵)은 별도 단계입니다.

출처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한국거래소, 110p). 목표치 벤치마크는 '26년 3월 말까지 완결형 계획을 제출한 **187개사**(고배당 약식 400개사 제외), 실적 벤치마크는 공시 587개사·미공시 1,994개사 기준입니다.

COE 산식 백서 p.40 각주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은 0% 가정」. 본 진단의 Equity Spread는 이 **내재 COE가 아니라 외생 COE**(CAPM 또는 업종 도출 COE)로 산출했습니다 — 내재 COE로 스프레드를 재면 「PBR이 1을 넘는가」의 동어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본 주의 에너지 3개사·유틸리티 1개사·기타 1개사는 백서에서 「업종 평균」으로 표기되나 대표성이 없습니다. 해당 업종은 판정을 참고로만 사용하십시오.

백서에 없는 벤치마크 업종별 목표 영업이익률 수치표 (개수만 존재: 수익성 43개사·영업이익률 38개사) · 부채비율·유동비율 목표 벤치마크 · 목표치의 시장별(코스피/코스닥) 분해 — 실적 기준 시장별만 존재(market_actual). 해당 지표는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고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공시이며, 백서 p.105는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허위기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한계 본 결과지는 제공 데이터 기반의 분석적 검토(review)이며 감사(audit)가 아닙니다. 투자·신용 판단의 단독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X 항목별 개선방향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13단계 항목 전체에 대한 개선방향입니다. 각 방향은 KIND 밸류업 공시 첨부 계획서 **427건 / 222개사**를 구조화한 관측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채택 건수는 **관측 빈도이며 우수성 지표가 아닙니다** — 업종·규모·상황에 따라 맞는 선택이 다르므로 최종 선택은 회사가 합니다. 비율은 탐지 재현율 75% 기준의 **하한**입니다.

① 기업가치 진단

미충족 · 492자

코퍼스 채택 당기순이익 390건(91.3%) · 매출액 348건(81.5%) · 영업이익 331건(77.5%) · 포트폴리오 250건(58.5%) · 최대주주 222건(52.0%)

백서 2.1 다각적·입체적 현황진단은 미충족이고, 대조 가능한 지표는 영업이익률 2.99%와 매출액 CAGR −5.66%뿐이며 영업이익 CAGR은 제33기 영업손실 탓에 산출불가다. 코퍼스 427건에서 관측된 축은 당기순이익 390건(91.3%)·매출액 348건(81.5%)·영업이익 331건(77.5%)·포트폴리오 250건(58.5%)·최대주주 222건(52.0%) 순이다. 당사는 사업보고서에 상하수도·제설·재활용 3개 부문의 자산·부채·매출이 이미 분해돼 있어 포트폴리오 축은 추가 산출 없이 쓸 수 있고, 최대주주 축도 ㈜에코 및 특수관계자 24.10%로 확보돼 있다. 방향은 (A) 3개 부문별 손익과 투하자본을 시계열로 펼쳐 어느 부문이 자본을 쓰고 어느 부문이 벌었는지 분리하는 형태와, (B) 전사 단일 축으로 ROE·PBR 시계열만 제시하는 형태로 갈린다. (A)는 부문별 공통비 배부기준과 자산 귀속기준 확정이, (B)는 비교할 산업평균의 출처 결정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재현율 75% 하한 · 백서 2.1 충족률 42.2%

선택 시 필요한 것 부문별 공통비 배부기준·자산 귀속기준, 또는 산업평균 출처

② 시장평가 분석

미충족 · 452자

코퍼스 채택 자사ROE 344건(80.6%) · 자사PBR 267건(62.5%) · 시가총액 151건(35.4%) · 자기자본비용 111건(26.0%) · ROE추이 93건(21.8%) · 1배미만 82건(19.2%)

백서 2.2 자본비용 분석은 미충족이며, PBR 0.80배·ROE 8.59%·내재 COE 10.76%·Equity Spread −1.51%p가 이미 산출돼 있다. 코퍼스에서 자사ROE 축은 344건(80.6%)·자사PBR 축은 267건(62.5%)으로 널리 관측되는 반면, 자기자본비용 축은 111건(26.0%)에 그치고 case2에서는 14.1%로 내려간다. 당사는 ROE·PBR·내재 COE까지 이미 갖췄으므로 신규 산출이 필요한 것은 외생 COE 하나다. 방향은 (A) CAPM으로 COE를 산출해 ROE와 한 축에 겹친 스프레드 시계열을 제시하는 형태와, (B) 업종 도출 COE 10.1%를 기준선으로 삼아 갭만 표시하는 형태가 있다. (A)는 외부 검증이 쉽고 (B)는 즉시 착수할 수 있다. (A)는 β 산출기간과 시장위험프리미엄 출처 확정이, (B)는 대용치임을 명시하는 각주 처리가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2 충족률 25.8% · 희소성 최고 · 백서 선정 1건 · 코스닥 0건

선택 시 필요한 것 β 산출기간·Rf·ERP 출처 확정, 또는 업종 도출 COE 대용 표기 결정

③ Peer 분석

미충족 · 452자

코퍼스 채택 PER 268건(62.8%) · 애널리스트 176건(41.2%) · Peer비교 140건(32.8%) · 배당수익률 118건(27.6%) · 글로벌비교 27건(6.3%) · EV/EBITDA 10건(2.3%)

이 항목은 백서 2.1·2.2 두 항목에 걸리는데 둘 다 미충족이고, 대조 가능한 자사 값은 PBR 0.80배와 ROE 8.59%다. 코퍼스에서 PER 축은 268건(62.8%)으로 가장 넓게 관측되고 Peer비교 축은 140건(32.8%), 배당수익률 축은 118건(27.6%)이다. 당사는 배당 이력이 없어 배당수익률 축을 Peer 비교에 쓸 수 없고, 애널리스트 축 176건(41.2%)도 커버리지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방향은 (A)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제조 국내 동종사를 좁게 잡아 PBR·ROE 2축으로 비교하는 형태와, (B) 소재 업종 17개사 공시기업 평균(목표 ROE 10.1%·목표 PBR 1.0배)을 준거로 삼아 업종 대비 위치만 제시하는 형태로 갈린다. (A)는 Peer 선정기준과 회계기준 정합성 확인이, (B)는 업종 모집단 17개사라는 표본 규모를 함께 적는 처리가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1 42.2% · 2.2 25.8%

선택 시 필요한 것 Peer 선정기준·회계기준 정합성, 또는 업종 모집단 규모 병기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④ 저평가 원인 분석

미충족 코퍼스 채택 ROE개선필요 97건(22.7%) · 자산효율화 61건(14.3%) · 성장정체 37건(8.7%) · 낮은ROE 37건(8.7%) · 변동성 36건(8.4%) · 디스카운트명시 35건(8.2%) 462자

백서 2.4 종합적 목표설정은 미충족이고, 원인 후보로 쓸 수 있는 값은 ROE 8.59%·Equity Spread −1.51%p·PBR 0.80배다. 코퍼스에서 ROE개선필요 축은 97건(22.7%)·자산효율화 축은 61건(14.3%)·성장정체 축은 37건(8.7%)으로 관측된다. 당사는 매출액 CAGR −5.66%와 영업이익률 2.99%를 이미 갖고 있어 성장정체·수익성 축은 추가 산출 없이 쓸 수 있는 반면, 자산효율화 축을 쓰려면 총자산 55,638백만원 중 유형자산 21,857백만원과 단기금융상품 8,070백만원의 수익 기여를 별도로 갈라야 한다. 방향은 (A) 스프레드 −1.51%p를 저평가의 단일 원인으로 놓고 ROE 경로만 다루는 형태와, (B) 매출 역성장과 자산 구성을 함께 원인으로 놓는 형태로 갈린다. (A)는 COE 산출근거 확정이, (B)는 유휴자산 판정기준과 부문별 투하자본 산출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4 충족률 52.5% · 백서 선정 1건

선택 시 필요한 것 COE 산출근거, 또는 유휴자산 판정기준·부문별 투하자본

⑤ 제고 목표 설정

미충족 코퍼스 채택 중기계획 258건(60.4%) · 목표연도명시 176건(41.2%) · ROE목표 164건(38.4%) · 매출목표 130건(30.4%) · 배당성향목표 78건(18.3%) · PBR목표 42건(9.8%) 459자

백서 2.3 중장기 계량목표는 미충족이나 코퍼스 충족률이 95.3%로 가장 높은 항목이어서, 목표 없이 공시로 가는 경로는 코퍼스에서 사실상 관측되지 않는다. 자사 현재값은 ROE 8.59%·PBR 0.80배·주주환원율 0.0%다. 코퍼스에서 중기계획 축은 258건(60.4%)·ROE목표 축은 164건(38.4%)·PBR목표 축은 42건(9.8%)이고, 소재 업종에서 시장평가(PBR)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35%다. 진단이 낸 레인지는 중기 3년(FY+3)·ROE 앵커 10.1%·PBR 상한 1.0배이며, 상한을 넘기면 백서 p.41 경고 대상이다. 방향은 (A) ROE 단일 목표로 좁히는 형태와, (B) ROE에 주주환원율을 더해 두 축으로 세우는 형태로 갈린다. 숫자는 회사가 정한다. (A)는 ROE를 레버리지와 자산회전율로 분해한 달성경로가, (B)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확인과 이사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3 충족률 95.3% · 소재 업종 시장평가 목표 제시 35%

선택 시 필요한 것 ROE 달성경로 분해, 또는 배당재원 판단·이사회 승인 절차

⑥ 경영진 전략 연결

미충족 코퍼스 채택 CFO역할 59건(13.8%) · 주식보상 42건(9.8%) · CEO책임 19건(4.4%) 450자

백서 2.6 임직원 인센티브 연계는 미충족이고, 코퍼스 충족률 7.3%·코스닥 선정 0건으로 관측 자체가 희소한 항목이다. 코퍼스에서 관측된 축은 CFO역할 59건(13.8%)·주식보상 축은 42건(9.8%)·CEO책임 축은 19건(4.4%)이다. 당사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사외이사 3인으로 이미 두고 있고 그 권한사항에 성과보상제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성과보상체계·재무성과 연계성 점검이 명시돼 있어, 제도 신설 없이 기존 위원회의 기존 권한 범위 안에서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이다. 방향은 (A) 보수위원회 심의기준에 ROE 또는 주주환원 지표를 명시적 연계항목으로 넣는 형태와, (B) 주식보상 제도를 신설해 주가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갈린다. (A)는 보수위원회 규정 개정과 적용대상·평가주기 결정이, (B)는 재원 확보와 주주총회 결의, 그리고 부여 물량의 희석효과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6 충족률 7.3% · 희소성 높음 · 코스닥 0건

선택 시 필요한 것 보수위원회 규정 개정·적용대상 결정, 또는 주식보상 재원·주주총회 결의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⑦ 이사회 커뮤니케이션

미충족 코퍼스 채택 사외이사 211건(49.4%) · 감사위원회 141건(33.0%) · 전자투표 139건(32.6%) · ESG위원회 102건(23.9%) · 집중투표 97건(22.7%) · 이사회승인 92건(21.5%) 452자

백서 2.12 지배구조 개선목표·이행일정은 미충족이나, 제도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이사회 6인 중 사외이사 3인, 감사위원회 3인 전원 사외이사, 투명경영위원회·보수위원회 설치가 사업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코퍼스에서 사외이사 축은 211건(49.4%)·감사위원회 축은 141건(33.0%)·전자투표 축은 139건(32.6%)·집중투표 축은 97건(22.7%)으로 관측된다. 당사는 앞의 두 축을 현황만으로 쓸 수 있는 반면, 집중투표제는 정관상 배제, 서면투표제는 미도입이고 전자투표제는 사업보고서 투표제도 표(미도입)와 본문(채택)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방향은 (A) 이미 갖춘 위원회 구조를 개선목표·이행일정 형태로 재서술하는 형태와, (B) 미도입 제도 중 도입 대상을 골라 일정을 붙이는 형태로 갈린다. (A)는 기재 상충 정정이, (B)는 정관 개정과 주주총회 일정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12 충족률 57.4% · 희소성 높음 · 코스닥 0건

선택 시 필요한 것 전자투표 기재 상충 정정, 또는 정관 개정·주주총회 일정

⑧ 제고 계획 공시

미충족 코퍼스 채택 ESG 313건(73.3%) · 배당성향현황 257건(60.2%) · 핵심사업집중 244건(57.1%) · 자사주매입 240건(56.2%) · 총주주환원율현황 207건(48.5%) · 신사업 196건(45.9%) 467자

백서 2.5 구체적·합리적 계획수립은 미충족이고, 관련 지표인 배당성향·주주환원율·배당수익률이 모두 0.0%다. 코퍼스에서 배당성향현황 축은 257건(60.2%)·자사주매입 축은 240건(56.2%)·총주주환원율현황 축은 207건(48.5%)·배당이력 축은 159건(37.2%)으로, 이 항목의 절반 이상이 환원 현황을 근거로 쓴다. 당사는 세 축 모두 값이 0이어서 현황 서술로는 지면을 채울 수 없고, 핵심사업집중 244건(57.1%)·신사업 196건(45.9%) 축이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재료다. 방향은 (A) 반도체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보유한 재활용부문을 성장 축으로 놓고 계획을 구성하는 형태와, (B) 환원 개시 자체를 계획의 첫 항목으로 놓는 형태로 갈린다. (A)는 부문별 투자계획과 회수기간, 그리고 제35기 유형자산 취득 3,068백만원의 배분 내역이, (B)는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개시 시점 결정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5 충족률 87.8%

선택 시 필요한 것 부문별 투자계획·회수기간, 또는 배당가능이익 산정·개시 시점

⑨ CEO / CFO IR

미충족 코퍼스 채택 NDR 236건(55.3%) · 실적발표 195건(45.7%) · IR조직 53건(12.4%) · 개인주주소통 44건(10.3%) · 해외IR 41건(9.6%) · IR정례화 40건(9.4%) 463자

백서 2.9 주요 경영진 소통참여는 미충족이며, 사업보고서에 IR 전담조직이나 기업설명회 개최 기재가 없다. 코퍼스에서 NDR 축은 236건(55.3%)·실적발표 축은 195건(45.7%)으로 넓게 관측되는 반면, IR조직 축은 53건(12.4%)·IR정례화 축은 40건(9.4%)에 그친다. 당사는 시가총액 182억원·코스닥 1667위 규모여서 증권사 주관 NDR 성립 자체가 전제되지 않고, 반대로 IR조직·IR정례화 축은 인원 배치와 개최 주기만 정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방향은 (A)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급을 소통 책임자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개최 주기를 명시하는 형태와, (B) 홈페이지 게시 중심으로 서면 소통 경로만 여는 형태로 갈린다. (A)는 담당 임원 지정과 개최 주기의 이사회 보고 절차가, (B)는 게시 항목·갱신 주기 확정과 홈페이지(nuvotec.co.kr) 내 게시 위치 결정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9 충족률 39.1% · 코스닥 0건

선택 시 필요한 것 소통 책임 임원 지정·개최 주기, 또는 홈페이지 게시 항목·갱신 주기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⑩ 투자자 피드백 수집

미충족 코퍼스 채택 영문공시확대 159건(37.2%) · 홈페이지게재 95건(22.2%) · 영문IR자료 35건(8.2%) · 영문홈페이지 20건(4.7%) · 밸류업전용 11건(2.6%) · IR전용페이지 9건(2.1%) 476자

이 항목은 백서 2.10 소통정책(충족률 21.3%)과 2.11 외국인투자자 소통강화(35.4%) 두 가지에 걸리며 둘 다 미충족이다. 국내 피드백 수집과 외국인 소통은 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분리해 본다. 국내 축에서는 홈페이지게재 95건(22.2%)·IR전용페이지 9건(2.1%)이, 외국인 축에서는 영문공시확대 159건(37.2%)·영문IR자료 35건(8.2%)·영문홈페이지 20건(4.7%)이 관측된다. 당사 외국인보유주식수는 541,500주(외국인소진율 4.06%)이고 영문 홈페이지·영문공시 기재는 사업보고서에 없다. 방향은 (A) 국내 개인주주 대상 홈페이지 창구를 먼저 열고 수렴 의견의 이사회 보고 경로를 명시하는 형태와, (B) 영문 요약공시부터 착수하는 형태로 갈린다. (A)는 의견 접수 창구 개설과 이사회 보고 주기 결정이, (B)는 번역 체계 확보와 국문 공시 대비 시차 기준, 그리고 영문 대상 공시의 범위 선정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10 21.3% · 2.11 35.4% · 백서 선정 1건 · 코스닥 0건

선택 시 필요한 것 의견 접수 창구·이사회 보고 주기, 또는 영문 번역 체계·공시 시차 기준

⑪ KPI 이행관리

미충족 코퍼스 채택 전담조직 26건(6.1%) · 정기점검 6건(1.4%) · KPI연동 5건(1.2%) · 이사회보고 5건(1.2%) 470자

백서 2.7 목표달성 평가·원인분석은 미충족이고 코퍼스 충족률 4.0%로 13항목 중 가장 낮으며, 관련 지표인 TSR도 1년 전 주가 부재로 산출불가다. 코퍼스에서 전담조직 축은 26건(6.1%)·정기점검 축은 6건(1.4%)·KPI연동 축은 5건(1.2%)·이사회보고 축은 5건(1.2%)으로 전부 한 자릿수대다. 이 희소성은 관측 결과일 뿐 채우라는 뜻이 아니며, 백서 p.104는 모든 항목의 열거보다 개별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적고 있다. 당사는 아직 공시할 목표 자체가 없으므로 이행관리는 목표 확정 이후에 성립한다. 방향은 (A) 목표 확정과 동시에 점검 주기·보고 대상을 함께 정해 두는 형태와, (B) 첫 공시에서는 목표만 내고 이행관리는 다음 회차로 미루는 형태로 갈린다. (A)는 점검 주기와 이사회 보고 절차 확정, 그리고 TSR 산출을 위한 기준시점 주가 확보가, (B)는 다음 회차 시점의 사전 명시가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7 충족률 4.0%

선택 시 필요한 것 점검 주기·이사회 보고 절차, 또는 다음 회차 시점 명시

⑫ 시장 반응 분석

미충족 코퍼스 채택 이행현황공시 238건(55.7%) · 연간공시 223건(52.2%) · 달성률 26건(6.1%) 458자

백서 2.8 이행평가 결과의 차기 반영은 미충족이고 코퍼스 충족률 6.8%이며, 관련 지표인 TSR은 산출불가다. 코퍼스에서 이행현황공시 축은 238건(55.7%)·연간공시 축은 223건(52.2%)으로 절반 이상이 이행현황을 다시 공시하는 구조를 쓰는 반면, 달성률을 수치로 적은 것은 26건(6.1%)이다. 백서 시장 맥락으로는 주기적 공시 114건이 단발 공시 473건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관측이 있다. 당사는 아직 첫 공시 전이므로 반응 분석의 기준시점 자체가 없다. 방향은 (A) 첫 공시 단계에서 다음 회차 공시 시점을 미리 명시해 주기적 공시 구조를 처음부터 만드는 형태와, (B) 단발 공시로 시작해 반응을 본 뒤 회차를 정하는 형태로 갈린다. (A)는 연간 공시 일정의 이사회 확정과 직전 공시 대비 비교표 서식 결정이, (B)는 반응을 판단할 기준과 재검토 시점의 사전 결정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8 충족률 6.8% · 주기적 공시 114건 / 단발 473건

선택 시 필요한 것 연간 공시 일정의 이사회 확정, 또는 재검토 시점·판단 기준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⑬ 전략 수정

미충족

코퍼스 채택 계획수정 22건(5.2%) · 재공시 5건(1.2%) · 환경변화반영 3건(0.7%)

452자

이 항목도 백서 2.8에 걸리며 미충족이고, 코퍼스에서 이 항목을 다룬 공시는 28건(6.6%)뿐이다. 관측 축은 계획수정 22건(5.2%)·재공시 5건(1.2%)·환경변화반영 3건(0.7%)으로 전부 한 자릿수대이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 수정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당사는 첫 공시 전 단계이므로 수정 대상 계획이 없고, 매출액 CAGR −5.66%와 제33기 영업손실을 겪은 이력이 있어 계획 전제가 흔들릴 가능성 자체는 낮지 않다. 방향은 (A) 첫 공시에 수정 요건(목표 전제가 되는 매출·원재료가·공공 발주 조건의 변동 임계치)을 미리 적어 두는 형태와, (B) 수정 조항 없이 공시하고 필요 시 재공시로 처리하는 형태로 갈린다. (A)는 전제 변수와 변동 임계치의 사전 합의, 그리고 임계치 초과 시 이사회 부의 절차가, (B)는 재공시 판단 주체와 판단 시점의 결정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8 충족률 6.8% · 이 항목 서술 28건(6.6%)

선택 시 필요한 것 전제 변수·변동 임계치 사전 합의, 또는 재공시 판단 주체 결정